



인권선언 50주년에 생각하는 인권의 문제

박래균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타고난 존엄성과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초는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다.”

인류는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위의 문장으로 시작되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바로 올해는 ‘타고난 존엄성과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인권을 세계가 확인하고 그 인권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인권은 이처럼 단순한 권리의 집합이 아니라 인류가 역사과정을 통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치로서 자리잡아 왔으며, 이런 인권은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 전통에 묶여 살고 있는 인류를 묶어주는 최대 공약수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갈수록 높여가고 있다.

인권에 무지한 우리 사회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이 빼앗길 수 없는 권리인 인권이 제대로 실현되기에는 멀었다. 지구 곳곳에서는 전쟁이 끊일 날이 없고, 국가권력은 여전히 고문을 자행하고, 경찰과 군대가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IMF 구제금융에서 보듯이 국제금융자본은 각 나라의 경제구조를 해체시키면서 노동자들의 노동의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이런 반

인권적인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권을 얘기할 수 밖에 없으며, 다소 비현실적인 것 같은 인권의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인권에 대해서 전 사회가 인권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이를 데 없다. 그것은 아직도 이 사회에서는 인권을 단지 감옥에 갇힌 양심수 문제 정도로 이해하는 데서 드러난다. 더욱이 이 나라에는 아직도 양심수의 개념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반인권 세력이 사회의 지도층을 구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된 김대중 씨가 양심수 석방 문제를 얘기한 것을 갖고 그토록 온갖 치졸한 논리를 다 동원해대며 물어뜯었던 것이다.

양심수는 사상이나 신념이 어떠한 것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인간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모든 정보에 대해 자유로이 알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의견을 가지며, 또한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공산주의자'든 '민족주의자'든 상관하지 않는다. 단지 그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짓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양심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정도일 뿐이다.

한 쪽의 양심을 지니고 살 자유마저 박탈하고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다. 장기수에 대해서 전향을 강요하는 것이 국가의 법제도 안에 버젓이 있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자로 몰려 감옥에 갈 수 있는 국가보안법이 엄존하는 곳이 우리나라다. 이런 사회에서는 전전한 토론과 비판이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사회는 올바르게 발전할 수 없다. 하지만, 인권의 영역에서 사상양심의 자유와 고문 받지 않을 자유는 분명 중요한 문제지만, 전체 인권의 영역에서 그것은 일부분일 뿐이다. 인권에는 시민·정치적 권리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어린이의 권리, 발전권, 집단권, 평화권 등등 수많은 내용들이 있다. 실로 그 대상의 광범함에는 질리기조차 한다.

인류사회는 끊임없이 '자유'와 '평등'을 지향해왔다. 남에게 억압받지 않는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 그렇기 때문에 남으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자유의 덕목이다. 평등은 단지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회의 평등도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권리 뿐만 아니라 교육의 권리, 건강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들이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인권이 짓밟히는 데 너무 익숙해 있다. 인권은 그야말로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을 잘 때까지(아니 잠자는 그 순간에도) 한 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을 찾아 내 생활에 소용되는 무기로 쓰러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을 인권 위에 잠자는 못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내 권리 내가 찾아먹고, 우리 권리 서로 찾아주자' 는 구호를 내걸어야 할 판이다.

연대와 나눔의 정신을 갖자

얼마 전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천주교 신부로 있는데, 신부수업을 위해 로마에서 있을 때 그곳의 아는 신부를 따라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는 카톨릭청년회 모임에 갔었다고 한다. 그 나라에서는 이미 실업문제가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른 때였기 때문에 마침 이 심각한 실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갖고 토론했다고 한다. 거기서 그 이태리 신부는 노동자들에게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4명의 임금을 다섯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즉 다섯 명 중 1명이 실업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노동시간을 줄여 네 명이 일하던 것을 다섯 명이 일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러자 노동자들은 모두 그런 방법을 좋다고 일단을 대답했지만, 막상 자신의 임금이 깎이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한결같이 뒤로 빼더라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이태리 노동자들의 모습만은 아닐 것이다. 실업 문제가 최대의 노동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때, 옆의 동료들이 실업자가 되어 직장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목 잘리지 않은 것만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요즘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화장실 가는 것도 겁 난다고 한다. 상급자의 눈에 나서 언제 목 잘릴 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고, 눈치 보느리고 밤 늦도록 퇴근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업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내 자신의 자리만을 보전하겠다는 것으로는 되질 않는다. 실업의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과 연대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임금도 동료와 나눌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대기업의 노동자가 중소기업, 하청업체의 노동자와 연대하고, 한국의 노동자가 동아시안의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금융자본의 횡포에 저항에 나가는 일외에 무슨 방법이 있을까?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빈민이, 농민이, 지식인들이, 서로의 고통을 끌어안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려는 끈끈한 연대감을 갖는다면 궁극적인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권의 이념은 한낱 꿈으로만 남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인권을 알아야 진짜 노동자

“연대란 인류의 고통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자기 의 것으로 여기고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는 것이다. 인권을 부정하는 어떠한 형태의 침해에 대해서도 말로나 행동으로나 연대감을 표시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책임이다.”(유엔발행 전문가 훈련 시리즈 중에서)

이런 연대를 지금처럼 절실하게 요구하는 때는 없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이익에만 빠져 있을 때 그 노동조합은 다른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며, 다른 계층과 연대해낼 수가 없다. 노동자들의 문제를 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멍청한 생각이다. 사회여론을 앞세운 일방적인 탄압 끝에 투쟁의 대오는 산산히 부숩히고 노동자들 속에 패배감만 팽배하게 할 것이다.

경제적인 권리가 위축되면 그와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정치적 권리도 위축되게 된다. 자유권과 사회권은 서로 뉘러야 뉘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봉쇄된다. 이런 점에서 지식인 사회를 비롯한 다른 계층의 사람들도 실업의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된다. 양심수의 문제나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노동자들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실업으로 내모는 지배층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기능하는 법체계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없이 노동자가 노동자의 사상을 어무런 제약과 간섭없이 표현하고, 함께 뜻맞는 이들과 노동운동을 위해 뭉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또한 국가권력이나 독점자본의 횡포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이제는 노동조합의 교육 내용 속에 ILO 조약만이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인권의 사상과 역사, 항목들에 대한 것들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를 통해 존엄한 존재로서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지닌 인간으로 거듭나 진정한 연대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노동자의 자유와 평등을 향한 투쟁도 투쟁도 비로소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